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2

한나의 사역

성경: 삼상 1:1-2:11, 18-21, 26

- I. 우리는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주님의 회복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인 이기는 이들을 예표하는 시온을 건축하는 것이다.
- A. 시온은 다윗왕의 성이자(삼하 5:7) 예루살렘성의 중심으로서, 그곳에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건축되었다(시 48:2, 9:11, 74:2, 76:2하, 135:21, 사 8:18).
- B. 구약에서는 시온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성이 있었다. 성경의 예표에서 교회생활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이다. 따라서 교회생활 안에는 한 무리의 이기는 이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온전하게 되고 성숙된 하나님-사람들이다. 바로 이러한 이기는 이들이 오늘날의 시온이다 — 비교 계 14:1-5.
- C.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아름다운 곳(시 48:2, 50:2)인 시온은 이기는 이들을 나타내는 예표이며, 그들은 교회의 고봉, 중심, 높아짐, 강화됨, 풍성함, 아름다움, 실재이다(48:2, 11-12, 20:2, 53:6상, 87:2).
- D. 예루살렘의 특징들과 생명과 축복과 세위짐은 시온에서 온다 — 왕상 8:1, 시 51:18, 102:21, 128:5, 135:21, 사 41:27, 율 3:17.
- E. 시온인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이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완결하여, 완결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영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거처인 궁극적인 지성소를 이끌어 온다(계 21:16, 비교 출 26:2-8, 왕상 6:20).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 전체가 시온이 될 것이며, 모든 믿는 이들이 이기는 이들이 될 것이다(계 21:1-3, 7, 16, 22).
- F.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건축하고자 하시는 것은 시온, 곧 이기는 이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계시의 내재적인 실체이다. 확실히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엡 6:17-18, 골 4:2, 빌 3:8-14.
- G. 우리가 활력화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이기는 이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다. 활력적인 것은 살아 계시고 활동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살아 있고 활동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움직이시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기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무엘기상·하

메시지 2 (계속)

- H. 강탈당한 이 땅 위에 주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열려 있고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가 된 여호와와 의 산, 곧 시온산이 있다. 시온으로 예표된 이기는 이들은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온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소유하시기 위하여 돌아오실 수 있는 교두보이다 — 시 24:1-3, 7-10, 단 2:34-35, 7:13-14, 율 3:11, 계 11:15, 19:13-14.
- I.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고봉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에 도달할 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이기는 이들, 곧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가 될 때, 이로 인해 교회 시대인 이 시대가 마감될 것이고,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왕국 시대에 그분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이 땅을 차지하시고 소유하시며 통치하실 것이다 — 계 19:7-9, 20:4-6, 시 24:7-10.

II. 사무엘기상은 예표를 통해, (다윗으로 예표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왕국을 이끌어 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 A. 아론의 계통에 따른 낡은 제사장 직분은 엘리 때에 진부해지고 기울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삼상 2:12-29),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갖기 원하셨다.
1. 사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그들의 원수들에게 패배하는 것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킬 때, 주님은 그들을 압제자들의 손에서 건져 줄 사사를 일으키셨지만, 그 사사가 죽고 나면 그들은 그들의 악한 행실로 돌아가 다시 부패하게 되었다(삿 1:1-2, 2:11-3:11). 사사기에서 이것은 하나의 주기를 이루어 일곱 차례 반복되었다.
 2.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다만 사사들의 다스림 아래 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이기는 나실인들(민 6:1-9와 각주들)인 사무엘들을 원하신다. 이들은 참다윗, 곧 통치하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천년왕국을 이끌어 올 것이며, 이 왕국에서 이기는 이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마 13:43).
 3.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위해, 곧 사탄적인 혼돈 한가운데 있는 교회 시대로부터 왕께서 함께하시는 천년왕국의 시대로 이 시대를 전환해 줄 새로운 부흥을 위해 주님을 앙망할 필요가 있다.
- B. 하나님은 사무엘의 출생을 위하여 배후에서 일을 시작하셨다. 그분은 한 면에서는 한나의 태를 단으셨고(삼상 1:5), 또 다른 면에서는 한나를 화나게 하는 브닌나를 예비해 두셨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단아 놓으셨으므로, ... 브닌나는 그녀를 몹시 화나게 하며 괴롭혔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2 (계속)

다.”(6절) 해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너무나 화나게 했으므로 한나는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할 정도였다(7절).

- C. 이로 말미암아 한나는 자신에게 사내아이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기도는 한나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한나가 한 기도와 약속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삼상 1:10-11, 20). 한나는 임신하여 아이를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다(‘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이다).
- D. 하나님은 생명의 노선 안에서 그분과 하나였던 한나가 움직이도록 동기를 부여하실 수 있으셨다. 생명의 노선은 하나님의 백성의 누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노선이다. 이 노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그분의 왕국, 곧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얻으실 수 있으시다(마 16:18-19, 롬 14:17-18, 엡 1:22-23). 하나님께서 생명의 노선에서 그분과 하나인 이러한 사람을 얻으실 수 있는 한, 그분은 이 땅에서 길이 있으시다(삼상 1:1-2:11, 18-21, 26).
- E. 사실 사무엘의 근본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움직이도록 주권을 가지시고 은밀하게 동기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였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메아리치듯 말해 낸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이 신성한 움직임과 동역한 것이었다.
 - 1.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움직이신 결과가 하나님의 갈망의 성취를 위한 절대적인 나실인 곧 이기는 이의 산출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 삼상 1:10-20.
 - 2. 나실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며, 하나님을 왕과 주님과 머리와 남편으로 삼고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에 아무런 흥미가 없는 사람이다. 사무엘은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어머니에 의해 헌신되었다.

Ⅲ. 사무엘기상은 왕과 그분의 왕국을 이끌어 오는 사역을 나타내 보여 준다. 우리는 이것을 ‘한나의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다.

- A. 브닌나와 한나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원칙과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사역을 대표한다(삼상 1:2, 4, 7). 한나의 사역은 많은 자녀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만 왕을 이끌어 오는 것이었지만, 브닌나의 사역은 많은 자녀들을 얻는 것, 곧 많은 결과가 있는 사역이었다. 브닌나와 그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다수를 대표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시대를 전환하여 그리스도를 영광의 왕으로 다시 모셔 오는 것(시 24:1-3, 7-10)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사무엘기상·하

메시지 2 (계속)

- B. 한나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으며, 브닌나가 비교하고 조롱하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길이 되었다. 한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박해와 조롱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할 준비를 해야 한다.
- C. 이것은 단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동반자인 이기는 이들을 얻으시는 문제이다. 하나님은 한 백성, 곧 기도할 수 있고, 왕이신 그리스도와 공동 왕들인 이기는 이들이 함께하는 왕국을 이끌어 올 수 있는 이들을 얻기 원하신다.
- D.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이 출생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우리의 기도는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강화의 단계에서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기도해야 한다 — 계 1:4, 3:1, 4:5, 5:6, 2:7, 11, 17, 26-29, 3:5-6, 12-13, 21-22.
- E. 한나는 아들이 없이는 전진할 수 없는 그러한 지점에 이르렀다. 한나는 반드시 아들을 얻어야만 하는 지점에 이르렀다. 사무엘기상 1장에서 아들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기는 단체적인 사내아이, 곧 시대를 전환하여 왕과 그분의 왕국을 이끌어 오는 이들을 예표한다.
1.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움직임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사내아이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사내아이는 앞장선 이기는 이이신 그리스도와 뒤따르는 이기는 이들인 우리로 구성된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종결하고 왕과 그분의 왕국의 시대를 이끌어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대적인 도구로서 이기는 단체적인 사내아이를 필요로 하신다.
 2. 사내아이의 휴거는 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 온다. 이러한 휴거 후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 계 12:10.
- IV. 한나의 체험은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혼을 주님 앞에 쏟아 내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삼상 1:6, 10, 15-16).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마라의 쓴 물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 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출 15:22-25)
- A.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 주신 나무는 생명나무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생명나무’를 언급한다. 여기에서 ‘나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이다.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2 (계속)

1.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한 토막의 목재인 나무로 암시되어 있음—벧전 2:24) 부활하신(하나님의 생명으로 암시되어 있음—요 11:25)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가 쓴 물에 던진 나무가 생명나무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였다고 말할 수 있다.
 2.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생명나무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혼을 쏟아 낼 때, 우리는 이 나무를 우리 존재의 쓴 물에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쓴 물이 그분의 임재의 단물로 바뀐다.
- B. 한나의 기도는 그녀의 쓴 환경과 그녀의 쓴 존재에서부터 나왔다(삼상 1:6, 10). 그녀는 엘리에게 “나는 영이 짓눌린 여자입니다. ... 다만 여호와 앞에 내 혼을 쏟아 내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 너무 괴롭고 화가 나 이제껏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삼상 1:15-16)라고 말하였다. 시편 62편 8절은 “백성들이!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 그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접촉하는 그러한 기도는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리나온 말들로 이루어진다.
- C. 우리가 쓴 환경에 있고 우리 존재가 쓴 상태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되고 정직하게 우리 혼과 우리 마음을 주님께 쏟아 내야 한다. 이러한 기도가 왕과 왕국을 이끌어 올 이기는 이들을 산출한다.
- D. 우리가 ‘쓴 물’에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은밀하게 우리가 단지 우리의 내적인 치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출 15:26), 더더욱 이기는 나실인들을 산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이기는 나실인들은 하나님과 동역하여 왕과 그분의 왕국을 이끌어 올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 뛰어날 것이고(시 8:1), 세상의 왕국은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계 11:15).